



신이 설계하고 바람이 조형한 ‘ 올드코스 ’

19 85년 1월 골프의 발생지로 알려진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있는 올드코스를 방문하게 되었다. 골프장을 설계하는 사람으로서 건설한 지 500년이나 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골프장을 방문한다는 것이 커다란 보람이라 아니할 수 없었다.

올드코스 방문에는 당시 안양컨트리클럽(CC)의 총지배인이었던 안용태 사장과 윤인권 사장이 동행했다. 그들이 동행한 데는 안양CC가 용인 에버랜드에 건설할 골프장을 설계하기 전에 올드코스를 견학한다는 목적이 있었다.

올드코스 입구에 도착해보니 에덴만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사람이 날아갈 정도로 세쳤다. 골프 코스라고 가리켜진 곳은 사막의 사구 위에 초원이 이루어진 것 같았고, 또한 갈대밭 같기도 하였다. 특히,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이 장관이었다. 문헌에 보면 올드코스는 신이 설계하고 바람이 조형을 해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이를 실감나게 하였다.

우리 일행은 코스 관리자의 안내로 코스를 답사하게 되었다. 답사 중 코스 안내자는 시종일관 올드코스는 말 그대로 500년 동안 전혀 개조 또는 수정 없이 옛 그대로 유지해 왔다고 자랑했다. Play Area는 골프장이 생긴 이후 500년 간 나무를 심거나 초지를 조성하는 등 인공적인 것이 가미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유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자연주의 기본 개념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또한 올드코스에는 골프장 설계가들이 많이 방문한다고 말했다. 이유가 무엇이나고



물었더니, 그는 골프장 설계가들이 코스 레이아웃을 하는 중에 막히거나 답답할 때 올드코스에서 라운드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 후 올드코스를 3번 방문하였다. 그런데 갈 때마다 자연이 조금씩 훼손되는 감을 느꼈다. 1985년 방문 때에는 보경로(GT)에 자연이 어우러져 다음 티(tee)를 안내원 없이 찾아가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올드코스는 여전히 아름답다. 아니 아름답다기보다는 신비롭다는 표현이 좋을 듯하다. 홀 하나 하나가 너무나 변화무쌍하여 모방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이다.

올드코스를 견학하고 나서 필자는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골프장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지금도 산악 지대가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살려 자연 지형에 역행하지 않고 지형에 순응하는 골프장을 설계한다면 올드코스 못지않은 명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예컨대 파(par) 72를 고수하지 않고 지형에 따라 나오는 대로 파 71이든 파 70이든 간에 상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파 3홀이 지형에 따라 연속되도록 배열해도 아무 상

관이 없다. 더욱이 이러한 개념으로 골프장을 건설하면 공사비가 150억원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파 72, 거리 7,000야드 이상의 파 배열만 이상적으로 하더라도 험한 산악 지대에서는 공사비가 300억 400억원씩이나 들게 된다.

골프 코스 조성은 대체로 두 가지로 구분된다. 올드코스과 같이 자연을 그대로 이용해서 만든 코스, 즉 자연 발생적

코스과 자연을 훼손해서 계획적으로 사람의 스타일에 맞게 만든 코스, 즉 계획을 부여한 코스로 구분된다.

영국의 아일랜드에서는 자연 발생적인 코스가 얼마든지 있고 지금도 자연주의적 개념으로 골프장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연주의적 골프장이 미국, 일본 등지에서는 기록 경기를 위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면서 본래의 개념이 변해가고 있다. 있는 그대로의 대자연を楽しむ 것이 아니라 즐기 위한 자연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연주의적 골프장 코스에서는 기량이 60, 우연(運)이 40이었던 데 비해 계획을 부여한 기록 위주의 코스에서는 기량 90, 우연 10으로 바뀌었다. 필자는 지금도 골프장을 설계할 때면 올드코스과 그 주변에 있는 미어필드,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의 골프장들을 연상하곤 한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설계에 담기 위해 늘 고심하고 있다. 한국



의 올드코스를 애타게 그려보면서... 

임상하
(주) 임골프디자인기술사무소 회장